농협은행의 주식상장이 효과적인 전략이다.

□ 농협개혁에 자본금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.

○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, 사업 분리를 위해 부족한 자본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.

○ 국회에서는 농협법 개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명시적인 계획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, 농민단체들은 현재 농협중앙회 자본금을 먼저 경제지주회사에 배정한다는 규정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.

□ 농협은행의 지분을 100% 소유해야 하나?

○ 이러한 쟁점의 근저에는 농협은행의 지분을 100% 농협이 소유하여야만 한다는 전제가 자리 잡고 있으나, 농협은행의 지분 일부를 일반 주주 등 농협이 아닌 경제주체에게 개방하는 지분희석을 고려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쟁점이다.

○ 즉, 자본금이 부족하면 그 일부를 외부자본으로 조달하면 해결되는 쟁점이며, 이 경우 정부도 지원 자금을 주식시장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정자금 지원을 쉽게 결정할 수 있고 국민적 동의도 얻기 쉽다.

○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농협은행의 자율적 경영을 유지하고, 다른 시중은행과 같이 외국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농협은행의 지분을 100% 소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.

– 요컨대 농협은행의 기업공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인데, 이 같은 생각은 이제까지 농협은행사업을 농협이 100% 소유하여 왔기 때문일 것이다.

○ 물론 이러한 주장은 일정 부분 타당한 생각이라 할 수 있지만 농협은행을 100% 소유하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하며, 또 그것이 농가이익에 부합하는 효

과적인 전략인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.

-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는데 집착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다.

□ 농협은행의 목표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다.

○ 농협의 은행금융사업이 과거에는 농촌에 부족한 자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농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었으나, 자금과잉시대가 도래하면서 농협중앙회의 은행사업은 조합원인 농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이 되었다.

○ 따라서 이제 농협중앙회의 은행사업은 가능한 많은 수익을 올려 조합원에게 이익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, 그런 의미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.

- 어떤 요소보다도 수익성이 중심이 되어 판단하여야 하고, 그러기 위해서는 농협의 은행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선도은행이 되어야 한다.

□ 농협은행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지속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.

○ 은행사업은 성장하면 할수록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게 되며, 실제로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할 때 위험가중자산은 매년 약 13.5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○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면 BIS 기본자기자본비율 9%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1.2조원의 자기자본이 조달되어야 한다.

- 이것은 농협 은행금융사업의 당기순이익이 1.8조원이면 이중 1.2조원을 내부에 적립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(당기순이익 1.8조원은 현재 상태에서는 최대 경영성과를 고려한 것이다).

- 따라서 수익금의 일부인 6천억원만이 조합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, 만일

당기순이익이 1조원을 상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조합이 추가로 출자하여야만 농협은해의 BIS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 (이익금의 내부적립만으로는 자본금 충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중은행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다).

□ 농협은행도 인수 합병에 나서야한다.

○ 은행이 여수신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규모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은행의 경영전략은 지속적으로 군소 은행을 합병을 통하여 대형화하는 것이다.

– 농협은행의 규모가 최근 2위에서 4위 이하로 떨어진 것은 국민은행, 신한은행 등이 다른 은행을 인수합병함으로써 대형화한데 비해 농협은행은 인수합병을 하지 않았기(못했기) 때문이다.

– 앞으로 외환은행을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농협의 위치는 또 변할 것이며, 향후 농협은행이 지방은행 등을 인수하지 않으면 점점 더 경쟁력이 낮은 은행이 될 것이다.

□ 어떻게 인수 합병 자본을 확보할 것인가?

○ 다른 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한데, 우선출자나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같은 방식으로 자본금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확정적인 고배당을 하여야 하므로 수익성을 악화시키게 된다.

–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본 자기자본을 확충하여야 하는데 농협은행의 지분을 개방하지 않는 한 기본 자기자본을 쉽게 확충하기 어렵다.

□ 농협은행의 완전소유가 조합원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.

○ 회원조합이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농협은행의 경쟁력을 유지할 만큼의 자본금을 출자할 여력이 없다.

○ 설사 회원조합이 출자하여 농협은행을 100%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

라도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인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.

- 농협은행을 소유하면서 BIS 기본자기자본비율 9%를 유지하기 위해 농협이 13조원 정도를 출자하였다고 가정하여 보자.

- 이 때 당기순이익이 앞에서 지적한대로 최대 1.8조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 1.2조원은 BIS비율 유지를 위해 내부에 적립하여야 하므로 일선조합에 대한 배당은 약 6천억원 정도가 된다.

- 결국 13조원을 출자하여 6천억원을 배당받으면 연간 5%도 안 되는 이익만 얻는 것이 되므로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농협은행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소유한다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되지 않는다.

○ 요컨대 농협은행을 완전 소유하면 독립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는 명목상의 이익은 있지만 조합원의 실질적 복지증진과는 연계되지 않은 그림에 떡이라고 할 수 있다.

□ 완전소유는 유지될 수 없다.

○ 설사 조합의 출자에 의해 농협은행이 다른 은행을 인수 합병할 만큼의 자본금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장된 다른 은행을 인수하는 순간 농협은행의 지분을 부분적으로 외부에서 소유하는 것이 된다.

- 즉 농협은행이 다른 은행을 인수하는 전략을 선택한 순간 100% 농협 소유구조가 무너지게 되므로 성장과 완전소유라는 목표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.

- 완전 소유를 위해 인수 합병전략을 포기한다면 경쟁에서 떨어지게 되어 100% 소유라는 전략이 무의미해질 것이다.

□ 은행을 완전 소유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.

○ 그러나 사실 은행사업은 어떤 주체가 100%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독립적으로

경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.

○ 왜냐하면 기본 자기자본비율이 9% 이면 90% 이상의 위험자산은 예금자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.

–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 돈을 은행의 대표주주가 자유롭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산업에서는 규제가 강하고, 그런 의미에서 독립적으로 경영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.

□ 기업공개가 되어야 경영성과가 향상된다.

○ 설사 100% 소유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경영전략인가도 의문이다.

– 은행의 경영성과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경영자를 잘 통제하여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,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성과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.

– 그런데 성과평가는 주식시장을 통한 평가가 가장 효과적이고 미래의 가치에 대한 평가도 주식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, 농협은행의 경영성과를 잘 파악하고 좋은 경영성과를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식상장이 효과적이다.

○ 대표적인 협동조합은행인 프랑스의 크레디아그리꼴(CASA)도 기업공개전략으로 도약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– 기업공개를 통해 시중은행인 크레디리요네(LCL)를 인수 합병함으로서 선도은행으로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고, 보험, 증권, 자산관리, 국제금융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소유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.

– 기업공개를 하여도 전국크레디아그꼴연합회(FNCA)가 현재도 약 54%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.

* 일선조합인 크레디아그리꼴 지역은행(CARB)은 기업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조합원사업과 연계성이 낮고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중앙은행인 CASA를 기업공개하고 있다.

□ 농협은행의 기업공개가 답이다.

○ 요컨대 농협은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 전략을 선택하되 농협이 지분의 50% 이상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효과적 발전 전략이다.

○ 기업공개로 은행부문의 자본금 문제가 해결되면 중앙회의 현 자본금의 대부분은 중앙회(혹은 연합회)와 조합의 경제사업을 확장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사업 발전을 위한 조건의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될 것이다.